

# 장성군, 올 스타기업 3곳 선정 '지역 경쟁력' 강화

## 현진기업·제이엔티·천연스토리 4년간 100개 회사 산업화 지원

장성군이 올해 관내 스타기업을 선정해 최대 5000만원 규모 재정 지원에 나섰다.

3일 장성군에 따르면 ㈜현진기업, ㈜제이엔티, ㈜천연스토리 3개사를 올해 스타기업으로 선정했다.

장성군은 지역 내 기업 가운데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기술 중대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스타기업에 선정되면 지식·산업 재산권과 디자인·마케팅 지원, 시제품 제작, 품질 인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성군은 총 5000만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

고, (재)전남테크노파크는 기술 지원을 책임진다.

장성군은 앞선 6월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 3명의 외부 평가위원을 위촉해 심사를 진행했다. 현장조사와 기술 경쟁력, 시장성, 조직 역량, 효율성, 기대효과 등 6개 항목을 점수화해 평가했다.

올해 스타기업으로 이름을 올린 ㈜현진기업은 공기조화장치, 정수처리장치를 제조하는 업체다. ㈜제이엔티는 특수 건축자재 전문 기업이며, ㈜천연스토리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고물가와 고환율 등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올해 54억 4500만 원의 사업



장성군이 올해 관내 스타기업 3곳을 선정, 최대 5000만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

장성군 제공

비를 투자해 지역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한 바 있다.

민선 8기 공약인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4년간 34억원을 투입해 100개 회사에 기술·산업화를 지원한다.

장성=유봉현 기자

## 장성 택시 사업구역 일부 조정 지역 주민 이동권 확보

장성군이 읍면별로 구분돼 있던 택시 사업 구역 가운데 일부인 △장성읍, 서삼·북일면 △남·진원면 △북일·북이면을 이달부터 통합 운영한다.

군은 3일, 택시 사업구역 일부를 조정하는 '장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도 운영 규정 제정'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현재 북일면과 서삼면에는 택시가 없으며, 진원면에는 1대만 운영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지역 주민들은 택시 이용에 적지 않은 불편이 따른다.

장성군은 이를 감안해 해당 구역 택시 운수 종사자들과 의견 수렴 절차를 갖고 제도 개선을 시행하게 됐다. 지역주민 이동권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군민의 교통 편의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과 교통복지 증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 담양군, 김장나눔 대축제 취약계층 2500세대 전달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김장나눔 대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3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15일 대전면을 시작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의용소방대 등 12개 읍면에서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참여해 김치 10kg을 관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2500세대에 전달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김장 나눔이 겨울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달됐으면 한다"며 "추운 날 애써주신 자원봉사자분들의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진행 화순군, 참여자 모집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화순팍 활성화 운영 지원) 참여자를 5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퇴직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를 지역에서 직접 발굴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신중년의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이다.

화순군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9월 '화순팍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이 공모 선정되었다.

화순팍 활성화 운영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으로 화순팍 고객 응대 서비스 분야 3명, 화순팍 운영 마케팅 업무 지원 분야 2명으로 총모집 인원은 5명이다.

참여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미취업자)으로 신청서와 해당 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화순군청 농촌활력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의 자격, 참여 이력 등 선발 기준 심사를 거쳐 22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참여 선정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해당 사업에 배치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신중년에게는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재취업의 기회가 되고, 전문성을 겸비한 직원들이 채용되어 화순팍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



담양군은 지난 달 15일 대전면을 시작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의용소방대 등 12개 읍면에서 자원봉사자 500명이 참여해 김치 10kg을 관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2500세대에 전달하는 김장나눔 대축제를 열었다.

담양군 제공

## 곡성 뚝방마켓, 로컬브랜딩 행안부 장관상

### 문화·창업 인큐베이터 공간 조성

곡성군이 운영하고 있는 '뚝방마켓'이 로컬브랜딩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곡성군은 '뚝방마켓 날개를 달다'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해 올해 3억원, 내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로컬브랜딩 사업'은 지역 고유자원 등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곡성군은 뚝방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게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홍보센터 설치, 야간 경관 조성, 스티커 사진기를 배치해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뚝방마켓을 중심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예술인들을 위한 문

화향유공간과 창업 인큐베이터 공간도 조성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뚝방마켓은 2016년에 섬진강기차마을 근처에 방치된 하천 독을 정비해 플라마켓으로 조성됐으며 매주 토요일 열린다.

뚝방마켓은 매해 전국 각지에서 60팀 이상의 판매자들이 참여해 수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다.

곡성=김대영 기자

## 전남농기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용 경진대회' 대상

### 농업인에 과학영농·교육훈련 쉽게 찾는 맞춤형 정보 제공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농촌진흥청 주관 올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활용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농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과학영농, 교육훈련, 영농상담 등 수요자들이 쉽게 찾아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구축, 시범운



영을 거쳐 지난 6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농업기술 보급체계의 효

율화 등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활용도를 높이고 공유·확산을 위해 전국 시도 및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남농업기술원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용 부문에서 올해 81403건의 농업기술 맞춤형 정보를 농업인과 수요자들에 제공했다.

박인구 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은 "농업 현장 수요에 부합한 디지털 기반 농촌지도사업을 정착시켜 농업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 '날개를 펴라' 캘리그래피 작품전 나주 움갤러리 9일까지

인간의 다양한 감성을 글꼴과 삽화로 표현한 작품전이 나주에서 펼쳐진다.

한국예술문화연합회는 오는 9일까지 나주 남평읍 '움 갤러리'에서 캘리그래피 작품전이 열린다고 3일 밝혔다.

'날개를 펴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캘리그래피와 글모양에 삽화가 더해진 작품이 펼쳐진다.

글모양과 메시지·삽화로 구성된 작품은 다양한 인간의 감성을 표현했으며 전시 주제를 실감있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번 전시는 캘리그래피 분야 30여명의 작품과 서울·부산·제주지역 작가의 예술작품도 출품됐다.

한국예술문화연합회는 지난해 '비상'을 주제로 첫 번째 전시를 열었다.

이명자 한국예술문화연합회 이사장은 "이번 전시는 문화예술인들이 날개를 펴고 높게 비상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라는 속주제도 담겨 있다"며 "작품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작품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나주=박송엽 기자

## 불명하며 고구마·가래떡 굽기 곡성 기차마을, 내년2월까지

곡성군은 내년 2월 말까지 주말과 휴일에 '불명하며 고구마, 가래떡 굽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방문객들은 라디오를 청취하며 따뜻한 불을 이용해 고구마와 가래떡을 구울 수 있다.

방문객들을 위한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의 전통놀이가 펼쳐지며 캠핑용 전기 난로가 설치된 가족용 난방텐트에서 힐링을 할 수 있다.

23일부터는 어린이 관광객 대상 '겨울 놀이터' 체험시설도 개장한다. 인공 눈으로 만든 눈썰매장과 얼음 미끄럼틀, 얼음 판 위에서 썰매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준비돼 있다.

기차마을 중앙광장 앞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이 설치됐으며 23일부터 25일까지 어린이 관광객에게 선물을 제공한다.

곡성=김대영 기자